

02-1 생명의 말씀

나의 믿음은

‘입술을 선하게 지키는가, 영혼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순종하는가’ 이 세 가지 분야를 통해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본다.

02-2 교회소식

권능의 무안단물 11주년 기념예배

하나님 권능의 역사로 바닷가의 잔물이 단물이 된 무안단물의 11주년 기념예배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점검해 본다.

03 기획특집

신약 성경이 한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은 옛 언약을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은 새로운 언약을 기록한 신약 성경의 흐름을 시대 순으로 정리해 살펴본다.

04 간증

“믿음으로 멋진 꿈이 자라고 있어요”

당회장님의 신앙서적들은 반듯한 신앙과 비전, 세상을 보는 넓은 안목을 갖게 해 주었다. 주님 사랑에 감사하는 성다경 자매와 정대훈 형제의 간증.

만민뉴스

제472호 2011년 3월 13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해요”



3월 7일 월요일 저녁 9시, 우리 교회 본당과 2성전에서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의 인도로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절야' 기도회가(주제: '가나안성전, 새 예루살렘 가기 운동') 시작됐다.

첫날부터 수많은 성도들이 모였다. 이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 속히 성결을 이루고자 하는 성도들의 사모함이 그 어느 때보다 승하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만민기도원 집계

에 따르면 이날 본당과 2성전에 모인 수만 해도 예년보다 약 5백 명이 늘어 4,383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그 외에 GCN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지성전과 국내외 지교회에서 함께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전날인 3월 6일 주일 저녁예배 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버리지 못한 악을 떠올려 주시고, 죄의 근본 뿌리까지 뽑아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

성도들은 이 원장의 인도에 따라

교회와 목자, 자신의 성결과 가나안 성전, 사명 감당,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를 위해 하늘 보좌를 올리는 진한 기도의 향을 올리고 있다.

주님 말씀에 따라 하루 일을 마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내일을 설계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다.

종려주일인 4월 17일까지 42일간 진행되는 이번 특별 다니엘절야는 성결을 이루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각오도 대단하다.

최석 집사(40세)는 “생각, 말, 행동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있다. 특히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단물만 내는 입술이 되기 위해서 불같은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며 “어느 때보다 중심 기도를 올리게 되어 행복하다”고 한다. 김복순 집사(31세)는 “기도할 때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왔다”며 “다니엘절야를 하면 하나님께 하루 일기를 쓰는 것처럼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할 때 위로부터 기쁨을 주신다”고 고백한다.



나의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종종 믿음을 정금에 비유하는데 금과 믿음은 둘 다 변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믿음은 순전한 정금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가요? 아니면 도금된 쇠붙이처럼 겉으로만 그럴 듯한 믿음인가요? 세 가지 분야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입술을 선하게 지키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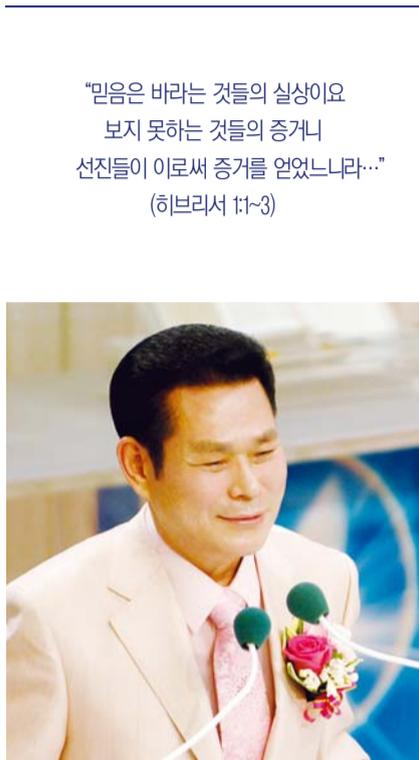
다윗은 왕위에 오른 후 안목의 정욕을 좇아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삼하 11장). 이로 인해 다윗은 엄청난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연단 중에 하나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지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아들을 피해 도망할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서 심한 저주와 모욕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고, 그를 죽이려는 용사들을 만류합니다. 자신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임을 깨닫고 철저히 낮아지며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한편,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으로서 사울 왕의 일족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이 죽고 나자 마치 다윗의 탓인 양 원망을 품었습니다. 다윗이 궁지에 몰린 것을 보고는 불만을 쏟아냈지요. 심지어 여호와 의 이름까지 망령되이 알컬으며 있는 말, 없는 말, 떠오르는 대로 다윗에게 분풀이를 했습니다. 남의 고통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케네스 온갖 악을 입으로 쏟아냈지요.

평소에는 믿음 있어 보이는 사람도 막상 시험 환난을 당하면 탄식과 원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단을 받을 때 시므이처럼 누군가가 애매한 말로 비난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견비해지거나 선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악을 발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그 믿음은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더구나 시므이처럼 자기 악과 틀 속에서 상대를 판단 정죄하고 저주하는 악한 입술이라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도 민망하지요. 참으로 믿음



당회장 이재록 목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1-3)

있는 사람은 다윗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선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혼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가?

사도 바울의 권능이 매우 컸지만 엘리사의 권능도 대단했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고 귀부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지요. 전쟁이나 사람의 생사화복도 그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사는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를 끝까지 불쫓음으로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엘리사가 권능을 행하기는 했지만 그 마음은 사도 바울의 마음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길을 가는데 수많은 아이들이 그를 쫓아다니며 조롱하고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견디다 못한 엘리사가 저주의 말을 내자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 아이들 중에 42명을 죽였지요. 엘리사도 자기 말의 권세가 크다는 사실을 알기에 처음에는 못들은 척 아이들을 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십 명이 계속 쫓아다니며 괴롭히자 결국 견디지 못하고 저주의 말을 내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찌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은 엘리

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유대인들이 그가 가는 곳마다 따라 다니면서 위협을 했지요.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저주하는 말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지옥에 가도 좋다고 말했지요(롬 9:3).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울 때는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해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찌하든 영혼이 잘되고 구원받기를 원할 뿐이지요. 사람에게 따라서는 성품이 열정적이어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참 믿음이 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할 때 참으로 믿음 있는 일꾼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순종하는가?

요셉은 17세 때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13년간 갖은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요셉에게 축복을 주시려는 것이었지만 그 섭리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요셉은 한결같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종이 되었을 때는 종으로서 최선을 다했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묵묵히 하나님께 맡기며 성실로 직무를 삼았지요. 세월이 흘러도 희망은커녕 더 쪼이거만 하는 것 같았지만, 요셉은 결코 하나님 섭리를 의심하지 않았고 마음이 변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명하시든지 순종합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후회나 변개함이 없지요. 처음에 순종하려던 마음이 자기 생각에 안 맞고 힘들니까 변한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다른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 중심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일꾼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의 고백과 영혼 사랑함과 순종의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참 믿음에 이르러 마음껏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신

권능의 무안단물 11주년 기념예배

하나님 권능의 역사로 바닷가의 잔물이 단물이 된 무안단물 11주년 기념예배를 지난 3월 3일, 무안단물터가 위치한 무안 만민교회(담임 김명술 목사)에서 드렸다. 이날 예배에는 서삼석 무안군수를 비롯한 무안군 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감사 이미영 목사(3대대교구장)의 설교(제목: 사랑) 뒤, 예능위원회 크리스탈심어즈와 새렘국악선교단의 축하공연이 있었다. 이어 권능의 단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졌다.



필리핀 세부 만민교회 창립예배

필리핀 세부 만민교회(담임 성숙 목사)가 지난 3월 6일 주일, 180여 명의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창립예배를 드렸다.

이날 성도들은 정성껏 준비한 찬양과 무용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세부 만민교회는 GCN(세계기독교방송네트워크) 방송을 통해 우리 교회와 동시에 주일예배와 금요철야예배를 드리며, 다나엘철야에도 동참하고 있다.

포토뉴스



광복 50주년 기념 평화통일학원대회



2003 러시아 연합대성회

“닛시오케스트라 창단 19주년 맞아”

지난 3월 6일 주일 저녁예배 시 닛시오케스트라(지휘 조관형 피터장로)가 본당에서 창단 19주년을 맞아 특별 연주로 영광 돌렸다. 이날 닛시오케스트라는 ‘천사들의 무용 2’를 연주했다. 1992년 3월 1일 창단된 닛시오케스트라는 해외 성회 및 국가연례조찬기도회를 비롯해 교계 연합행사, 자선 음악회 등 연주를 통해 복음 전파와 기독교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 왔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번지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 (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 (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팀 (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대학·가난·청년·배울·미리애]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나엘철야기도회	9:00 PM (매일, 단, 공휴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대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2) 851-3845
070-8240-5609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도전! 성경 통독! 신약 성경이 한눈에 보인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마태복음 5: 17)

구약

17권
5권
17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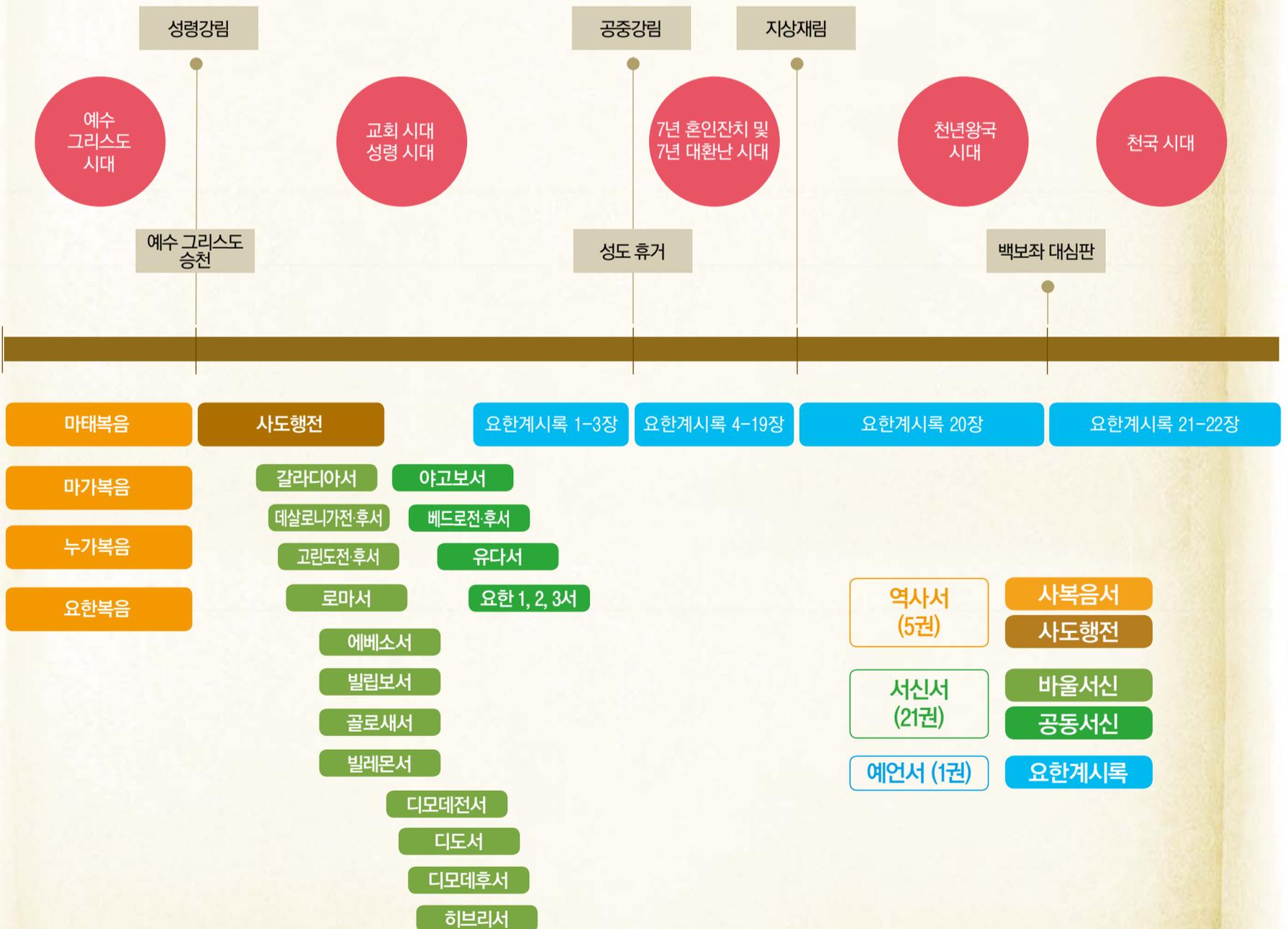
신약

5권
21권
1권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다.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반면, 신약 성경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한 4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 시대, 교회의 기원과 형성을 중심으로 사도들의 사역을 기록한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성령 시대와 교회 시대를 나타내며, 요한계시록은 교회 시대 이후 주님의 공중강림과 7년 혼인 잔치, 7년 대환난과 지상재림, 천년왕국과 백보좌 대심판 등으로 될 일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 신약 성경 시대 순 정리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역사서 5권, 서신서 21권, 예언서 1권으로 되어 있다. 그 순서가 연대별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서 시대별로 분류해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니 멋진 꿈이 자라고 있어요”

을 다하면서, 학생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학업에도 충실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올 A+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셨지요. 할렐루야!

30명의 스템을 뽑는데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원해 경쟁률이 매우 높았지요. 주님은 은혜로 선발된 저는 세계 최고의 무대를 경험하며 시야를 넓혀갔습니다.

또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때문에 취소되기는 했지만 대통령이 참석하는 VIP 초청 G20 공로자 격려 오찬행사에도 초대받았습니다. 청와대로부터 대통령 명의의 기념 선물도 받아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올해 8월,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1년간 공부하러 갑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단지 신앙의 기본에 충실했을 뿐인데 주님께서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셨지요. 기도를 쉬지 않고, 말씀을 즐겨 듣고 행하기를 힘쓰며 학업에 충실한 점을 기뻐하신 모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G20 정상회담과 함께 열린 비즈니스 서밋의 스템까지

저는 공부 외에도 많은 일을 경험해 보기 위해 대외활동을 했습니다. 다양한 능력을 갖춘 뒤, 교회에 힘이 되는 일꾼이 되고 싶었지요.

그러던 중, 작년 11월에 있었던 G20 정상회담과 함께 열린 비즈니스 서밋(Business-Summit)에서 스템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우와~ 합격!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경희대학교 논술 100% 우선선발 자율전공학부에 합격한 것은 오로지 주님 은혜입니다.

저는 내신 성적이 3등급 정도였습니다. 수시를 준비하면서 수능 점수를 높이기 위해 집중해 공부했지요. 논술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사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기도로 힘껏 밀어주셨습니다. 저를 위해 서뿐만 아니라 산상기도를 가진 당회장님을 위해서도 작정해 기도하셨지요.

수시를 보기 한 주 전쯤, 어머니는 꿈을 꾸셨습니다. 당회장님께서 나타나 “제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꽃이 피대요, 재미있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어 며칠 후에는 물에 관한 문제 세 개가 논술에 출제되는 꿈을 꾸셨습니다. 어머니는 잘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지요.

마침 당회장님께서 금요일아침에 창세기 강해 시 물에 대해 말씀하신 설교가 있어서 저는 수월하게 논술 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첫 수시인 경희대학교 시험 당일, 논술 시험지를 받아본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정말 여러 문제 중 세 문제가 물에 관해 출제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역사에 감동이 되었지요. 저는 조금도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 뒤 논술 100% 전형 합격 발표가 났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논술에 주력한 아이들에 한한 것이고, 저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 재미로 확인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논술 100% 우선 선발 자율전공학부에 합격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학교 정문을 들어설 때마다 주님 사랑에 마음이 설됩니다. 2학년 때부터는 동서의학을 전공합니다. 졸업 후에는, 치과 의사이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의사가 되기 위해 치의학 전문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소중한 체험으로 믿음을 성장시키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경희대학교 자율전공학부 1학년 정대훈 형제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국제사무학과 3학년 성다경 자매

저의 대학 생활 내내 당회장님 신앙서적은 저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작년 7월경 ‘생명의 씨(창세기 강해 29-32번) 말씀을 들으신 아빠(성낙훈 장로)는 놀랍게 변하셨습니다. 그 후 거의 매일 7시간 이상,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신앙서적으로 말씀을 무장하셨습니다. 엄마와 남동생, 제게도 각자 책을 사서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무장에 힘쓰니

저는 아빠 말씀에 순종해 용돈을 아껴 신앙서적을 구입했습니다. 학교 공부를 하듯이 꼼꼼히 읽으며 설교도 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고 값진 체험

도 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공부하듯이 복습하며 마음에 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은혜 받은 내용을 마음에 담으니 기도하기가 쉬웠고, 성결한 마음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한 예로 사랑에 관한 말씀을 읽은 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난 후 모든 일이 사소하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있었던 사소한 불편함도 악한 마음이라는 사실이 중심에서 깨달아졌지요. 그 마음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해 가니 버려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한 결과, 신앙성장은 물론 여러 가지 축복도 받아가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올 A+ 성적 장학금의 축복을 받고

저는 짧은 기간 동안 시험공부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전 공과목이 많아 공부해야 할 분량과 조별 과제가 많았지요. 공부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매일 밤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새벽 4시에 마치는 금요일아침에 오전까지 드렸지요. 집에 들러 간단히 씻고 밥을 먹은 후, 곧바로 학교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양의 공부를 하려다 보니 피곤이 몰려 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오가는 길에 ‘생명의 씨에 관한 설교를 듣자 피곤이 사라졌습니다. 덕분에 하루에 3~4시간 정도밖에 자지 못해도 힘들지 않게 공부할 수 있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 드릴 예배와 기도에 최선을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민성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4575-4194
- 부산민성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백성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2018-8410
- 새부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70-8764-3000, 010-7112-3017
- 대전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181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8277-7999
- 동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1-637-6443
- 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9663-1537

- 남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민교회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천안민성교회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1-701-0244
- 시흥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령동 956 ☎043)845-0617, 010-2278-0641
- 충주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1100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민성교회 마산합포구 회원2동 626-1 ☎055)247-8891~2, 010-5316-2046

- 밀양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70-7583-1537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1-9331-4405
- 통영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5214-8891
- 경주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민성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민성교회 전남 여수시 토덕동 500-5 ☎061)652-8311, 010-3592-9522
- 목포민성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873-6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춘천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71-1 ☎033)251-1144, 010-7900-2069
- 원주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명주동 12-2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민교회 제주시 연동 2307-5 ☎064)745-0675, 010-2468-2251
- 영동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556-8517-8, 010-7223-2073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 3동 188-26 ☎02)995-9951, 011-1717-1217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안원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겸재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8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6-776-101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2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아현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635-9103, 010-2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2251-3149